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사절 사용 능력 연구

- 중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홍윤기* · 유호**

<차 례>

1. 머리말
2. 글쓰기에 나타난 관형사절 사용 양상 분석
  2.1 분석 자료 선정
  2.2 관형사절 사용 양상
3.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사절 사용 능력 분석
  3.1 피수식 문장성분의 편중과 내부 구조의 단순성
  3.2 제한적인 피수식명사 그리고 빈번한 오류
  3.3 복합형식의 선호 그러나 형태,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
4. 맺음말

【국문초록】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사절 사용 양상과 사용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글쓰기 강좌에서 제출한 글쓰기 과제를 분석하였다. 모국어 화자와의 비교를 위해 한국인 학생의 글도 동등한 분량으로 검토하였다. 유학생은 관계관형사절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동격관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부교수(제1저자)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제2저자)

형사절의 사용 비율은 전체 사용량을 볼 때, 10% 정도이다. 관형사절 사용을 하고 있으나 비문법적인 문장을 양산하고 있어, 학습자의 부주의 또는 교육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관형사절의 피수식성분은 주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격관형사절의 피수식명사는 그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형사형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을 빈번하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확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관형사형어미와 관형사절이 후행 성분을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과 문장 확장의 기제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학생의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관형사절, 동격관형사절, 관계관형사절, 관형사형어미, 내포문, 글쓰기, 복합형식, 문법 사용 능력, 오류

1. 머리말

한국어 문법교육의 목표가 정확성과 유창성에 기반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는 점은 대다수의 교육자와 연구자가 인정하는 바이다. 한국어 문법교육과 연구의 초점은 조사, 어미, 시제, 양태, 높임법, 사동, 피동 등 형태적, 의미적, 기능적으로 분류가 명확한 범주들을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놓여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언어 사용 환경을 둘러싼 화용론적인 문제를 문법 범주와 관련시켜서 어떻게 연구하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한국어 문법교육의 관심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정확성과 유창성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문법교육의 목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고민할 것은 구어뿐 아니라 문어, 특히 글쓰기와 관련된 정확성,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단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라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성분, 그리고 각 문장성분의 격을 드러내는 격조사, 서술어의 적절한 시제, 상대높임법, 서법을 나타내는 적절한 어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복문 구성을 위해서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한국어 복문 구성과 관련해서 한국어문법 교육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문법 범주는 바로 연결어미이다. 연결어미의 의미는 특히 중요한 교육 대상이며, 두 문장의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사적 문제 또한 주어 제약, 서법 제약, 시제 제약 등도 의미와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복문 구성 방안으로 연결어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1)]

한국어의 복문 구성, 즉 문장을 확대하는 주요한 기제로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등을 이용한 내포문 구성 방안이 있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명사절과 부사절의 교육은 주로 어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들이 문장 확장의 기제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지는 않는 듯하다. 관형사절의 교육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관형사절은 초급 단계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별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주를 이루며, 관형사절의 문장 확대 기능을 중심으로

---

1) 혼다 도모쿠니・김인규, 「한국어교육과 일본어교육에서의 학문 목적 쓰기 교재 분석」,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1호, 2011, p. 55.에서는 학문목적 쓰기교재를 분석하여 학습자가 글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문장의 확대'라고 보고, 구와 절을 효과적으로 확장하면서 글을 쓰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장의 연결이 주로 연결어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그것의 의미와 기능, 전후 관계에 따른 인칭과 시제, 서술어, 문장의 유형 등에 따른 제약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한국어 내포문의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관형사절의 범주를 하위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양상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글쓰기에서 관형사형어미의 시제를 구분할 수 있다 해도 관형사절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가. 고양이가 태어난 지 오래 되지 않은 고양이라서 주었던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다.
나. 어렸을 때 나는 조용한 성격이 갖고 있는 고양이와 동물을 싫어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
다. 그것도 모르고 이상한 생각한 제 자신이 한심했다.

(1)을 보면, 관형사형어미의 시제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장이 어색하다. (1.가)는 내포문과 모문의 동일주어를 생략하지 않았고, (1.나)는 관형사절 내의 문장성분과 조사의 불일치가 보이며, (1.다)는 관형사절의 수식 성분이 잘못되었다. 관형사형어미의 시제를 구분하는 능력이 관형사절을 적절히 사용하여 문장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의 일부에 불과함을 보이는 예들이다.

관형사절 교육은 관형사형어미 또는 관형사절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관형사형어미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의 관형사형 사용 및 오류 양상, 그리고 교육 방안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관형사형어미의 사용 양상, 오류 양상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논의에는 이진경(2005), 김서형(2008), 한병수(2009), 한청(2009), 조수현(2010), 성지연(2010), 임시현(2011), 이준호(2013) 등이 있다. 이중에서 김서형(2008)의 논의는 참고할 만하다. 김서형(2008)에서는 기존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장의 접속이나 내포라는 관점을 소홀히 하고,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전달하거나 관용구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제시하는 형태론적 수업에 주력하는 바람에 학습자가 확대문의 문장 구성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2] 지금까지 한국어 관형사절을 이끄는 관형사형어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지만 관형사절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만든 관형사절의 구조와 관형사절의 사용 능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관형사절은 한국어 문장을 확장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문법범주이자 주요한 문법 교육항목이다.[3] 연결어미만을 활용하는 단조로운 문장 연결에서 벗어나 한국어의 수식 구조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간결하게 문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형사절의 문장 구성 기제로서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특별히 한국의 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작성해야 할 수많은 글쓰기에도 관형사절을 이용한 복문구성 능력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이 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자료를 분석하여 관형사절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모국어 화자의 글에 쓰인 관형사절 사용 양상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사절 사용 능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

2) 김서형, 「한국어 내포문의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 pp. 129-130.

3) 이재성, 「학술적 에세이에 나타난 대학생의 문장 구성 양상 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교양교육연구』 6-3, 2012, pp. 569-589에서는 대학생이 쓴 학술적 에세이에 나타나는 문장 중 부사절 내포문이 가장 많았으며, 문장을 구성하는 절은 부사절>관형절>명사절 순으로 빈도가 높았지만, 관형절의 빈도가 부사절에 버금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논문은 종속접속문을 부사절 내포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속접속문의 관점을 취한다면, 관형사절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도 있다.

2. 글쓰기에 나타난 관형사절 사용 양상 분석

2.1. 분석 자료 선정

이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는 서울 소재의 K대학교에서 운영되는 학부 교양 과목인 '글쓰기1'[4]에서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것이다. 김정숙(2000)에 따르면, 학문목적의 교육 과정에 필요한 주제를 학문적 영역별로 세분화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전공 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주제를 삼아야 한다[5]고 지적한 바 있다. '글쓰기1' 역시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으로 개설되었다.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글쓰기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근거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K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을 보면, '글쓰기1' 강좌는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 강의가 구분되어 있지만, 자신에 대한 성찰적 글쓰기를 공통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집단이 비교 분석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3개의 공통 주제가 포함된 글쓰기 과제물을 수집하여 두 집단의 관형사절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사절 사용 양상과 사용 능력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장에서는 유학생의 글[6] 8,577어절과 한국 학생의 글 8,658어

4) K대학교의 '글쓰기1' 강좌는 자아와 타자에 대한 성찰적 태도와 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초 글쓰기 위주로 진행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에세이 형식의 글쓰기 위주로 운영된다. 한국인과 외국인 강좌가 구분, 개설되며, 학부생은 이 강좌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분석 대상 글은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개설된 강의의 수강생들이 제출한 과제이다.

5) 김정숙,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 대학 진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11-2, 2000, p. 17.

6)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자료는 대부분 학부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쓴 것이고 한국어능력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수준이다.

절을 선정하여[7] 그 안에 나타난 동격관형사절과 관계관형사절을 분석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주제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최고의 순간', '닮고 싶은 사람' 네 가지이고 한국 학생의 글쓰기 주제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내가 사랑하는 것',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나는 대학생이다' 이다. 분석 자료의 개요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제별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어절 수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 학생	
글쓰기 주제	어절 수	글쓰기 주제	어절 수
최고의 순간	3,541	최고의 순간	2,334
내가 사랑하는 것	1,920	내가 사랑하는 것	2,159
나를 슬프게 하는 것	1,135	나를 슬프게 하는 것	2,029
내가 닮고 싶은 사람	1,982	나는 대학생이다	2,136
합계	8,577	합계	8,658

외국인 유학생의 글은 27명의 중국 학생이 작성한 것이며, 모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한국어능력시험 기준 3급 내지 4급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료 분석 및 수치화 과정의 부정확함을 줄이기 위해 3회에 걸쳐 반복 분석하였다.

2.2. 관형사절 사용 양상

홍윤기(2010)에 따르면,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관형사절은 대체

7) 유학생의 글은 4만 어절 이상 수집하였으나, 비교적 문장 구성이 적절하고, 복문의 출현이 잦은 글을 대상으로 분석 글을 추렸다.

로 관계관형사절과 동격관형사절을 구분하여 가르치는 상황이며. 관형사절은 초급 단계에서 교수되고 있는데, 주로 관형사형어미 '-(으)ㄴ, -는, -(으)ㄹ'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8]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관형사절의 사용 양상 분석은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글쓰기에 출현한 관계관형사절과 동격관형사절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관형사절이 다른 문장에 내포되는 과정에서 공통된 논항이 공유되는 현상을 가진 경우를 관계관형사절이라고 한다. 동격관형사절에 후행하는 피수식명사는 특정 명사류로 제한되는 반면에 관계관형사절은 어떤 체언 앞에서도 쓸 수 있다. 관계관형사절은 '-은', '-는', '-을', '-던' 등의 관형사형어미를 붙여서 실현되며, 관계관형사절이 수식하는 피수식명사의 문장성분에 따라 주어 수식, 목적어 수식, 부사어 수식, 서술어(명사+이다) 수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가. 같은 학번에 비해 나이가 많은 **나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나. 런웨이에서는 여유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델들이** …
다. 그와 반대로 지방에서 올라와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는 **친구**는 늘 삶이 고달팠다.

(3) 가. 번체를 배웠던 **나는** 간체를 못 알아봤다.
나. 왜냐하면 나는 건강한 **몸이** 있기 때문이다.
다. 이 식당에 가는 **고객들이** 많다.

(2)는 한국 학생의 글에서, (3)은 외국인 유학생의 글에서 가져왔다.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관형사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사용하는 관계관형사절은 그

8) 홍윤기, 「문법 교육 항목으로서의 새로운 관형사절 도입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 『이중언어학』 42권, 2010, p. 332.

내부 구조가 매우 간단하다. (3)의 예문뿐만 아니라 '그의 웃음소리를 들은 청중', '길을 잃은 아이', '돈을 안 내는 고객',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이 낭비한 음식', 등과 같은 경우를 보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아주 기본적인 문장 위주로 관형사절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2)의 한국 학생의 예를 보면, 관형사절의 내부 구조가 훨씬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4) 가. 그리고 문득 부엌 한 켠에 놓인 발판을 밟지 않고도 맨 위의 찬장을 열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나. 옛날부터 베고 자던 익숙한 **베개를** 베고 익숙한 향기를…
다. 시원한, 가을 밤, 할머니와 둘이 앉아 하늘을 보며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던 **계단을**…

(5) 가.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한국에 왔다.
나. 그리고 그날 배운 **단어나 문법을** 노트에 쓰고…
다. 나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사랑한다.

(4)는 한국 학생이, (5)는 외국인 유학생이 쓴 글에서 가져온 예들로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계관형사절을 볼 수 있다. 주어 수식의 경우처럼 목적어 수식의 경우도 단순한 문장 구조를 띠고 있다.

(6) 가. 너무 들떠서 가볍게 두다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두어서는 안 될 **곳에** 돌을 놓아 버린 것이다.
나. 대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보이는 **정원에서** 할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다. 한참 슈퍼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모델에게** 기념사진을 찍자고…

(7) 가.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
나. 그 돌사자는 선량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 시내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6)은 한국 학생의 글, (7)은 외국인 유학생의 글에서 가져온 예이다. 부사어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의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장소', '수단' 등의 부사어를 관형사절을 이용하여 적절히 꾸며주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관형사절의 내부 구조는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8) 가. 산에 오르는 것을 즐길 때에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다.**
나. 처음엔 별로 무겁게 생각되지 않던 **배낭이었지만…**

(9) 가. 망고는 참 신통한 **고양이이다.**
나. 아버지의 친구들 거의 다 성공한 **사람이다.**

(8)과 (9)는 관형사절의 피수식명사에 서술격조사가 후행하는 예이다. (8)은 한국 학생이 작성한 것인데, 관형사절을 구성하는 성분이 다양하며, 피수식명사에 후행하는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양상도 종결형, 연결형을 두루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9)의 외국인 유학생의 글에서는 관형사절의 내부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이(다)'의 활용 양상도 매우 단조로운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관계관형사절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후행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수식성분으로서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관형사절은 내부 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단어만을 이용하여 후행 성분을 수식하는 양상도 볼 수 있다. 관형사절의 내부 구조가 반드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통해 한국어 문장을 자유롭게 확장시키려면, 그 내부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동격관형사절은 한 문장이 갖추어야 할 성분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어 관형사절 부분만 따로 떼어놓아도 독립된 문장이 된다.

(10) 가.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큰 시련은 없을 거라는 **믿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 당시 어렸던 나에게 결승전 같이 중요한 시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얻었다.
라. 이 말이 내가 산을 사랑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
마.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어 볼 **생각**으로 도전을 결정했다.

(11) 가. 나는 한국에 유학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나. 계속 대학생활을 중국에서 보내면 나의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내 결심을…
다. 낯선 언어지만 참 듣기가 좋고 부드러운 언어였고 옷과 헤어 스타일은 아주 멋있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다.
라. 열심히 공부하고 미술을 배울 **생각**을 포기하라고 권했다.
마. 아버지가 나에게 유학을 다녀올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10)과 (11)은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글에서 확인한 동격관형사절이다. 동격관형사절에서 고려할 것은 바로 피수식명사이다. 동격관형사절은 관계관형사절과 달리 피수식명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11)을 보면, 피수식명사에 유의하여 적절한 관형사절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집단의 글에서 나타난 동격관형사절의 피수식명사의 종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통으로 발견되는 피수식명사는 '이유, 사실, 생각, 말, 소식, 느낌, 결심, 기억, 일' 등이다. 이외의 피수식명사는 다양성과 사용빈도의 측면에서 두 집단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 사용 빈도가 높은 피수식명사

유학생	한국 학생
이유, 사실, 생각, 말, 소식, 느낌, 결심, 기억, 일	
마음, 의문, 질문, 문제, 핑계, 존재, 단어	경우, 점, 믿음, 발표, 답, 제안, 얘기, 뿌리, 정보, 의미, 깨달음, 성취감, 확신, 디자인, 일념, 시련, 각오, 행운, 기분, 망설임

3.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사절 사용 능력 분석

2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글 8,577어절과 한국 학생 글 8,658어절을 대상으로 두 집단의 관형사절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관형사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표 3〉 관형사절 사용 빈도 비교

비교 항목	유학생	한국 학생
총 어절	8,577	8,658
글 1편당 평균 어절 수	318	481
관형사절 총 사용 문장 수	208	384
글 1편당 관형사절 사용 문장 수	8	20
관계관형사절(문장 수)	186	294
동격관형사절(문장 수)	27	62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의 글을 동등한 어절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은 글 1편당 평균 318어절을, 한국 학생은 글 1편당 481어절을 썼다. 글 1편 당 관형사절 사용 횟수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8회, 한국 학생은 20회를 기록하였다. 분석 자료 전체를 보면, 관형사절이 유학생의 글에서는 208회, 한국 학생의 글에서는 384회 쓰였다. 관계관형사절은 각각 186회, 294회가 쓰였으며, 동격관형사절은 각각 27회, 62회가 쓰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에 출현하는 관형사절의 횟수가 한국인 학생의 그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 피수식 문장성분의 편중과 내부 구조의 단순성

두 집단이 사용한 관계관형사절의 분석을 통해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피수식 성분이 주어에 상당 부분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 4〉는 두 집단의 관계관형사절 사용 양상을 피수식성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4〉 관계관형사절의 사용 빈도

	문장 수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명사+이다)
유학생	186	111 (60%)	27 (15%)	22 (11%)	26 (14%)
한국 학생	294	121 (41%)	76 (26%)	60 (20%)	37 (13%)

외국인 유학생이 사용한 186개의 관계관형사절 중에서 주어를 피수식 성분으로 하는 경우는 무려 111회이며 비율로는 60%를 차지한다. 목적어가 피수식성분인 경우는 27회, 비율 15%, 부사어가

피수식성분인 경우는 22회, 비율 11%, 서술어의 일부로 쓰인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26회, 비율 14%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관계관형사절을 주어 수식 성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한국 학생의 사용 양상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 학생이 사용한 294개 관계관형사절을 보면, 주어를 피수식성분으로 취하는 경우가 121회로 가장 많아서 이 점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와 같다. 하지만 사용 비율에서 보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가 41%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서 보이는 60%의 비율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수식 성분의 사용 비율에 따라 순서를 살펴보면, 한국 학생의 경우가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일부로 쓰인 체언'의 순서라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일부로 쓰인 체언>부사어'의 양상을 보인다. 사용 빈도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피수식성분의 출현 비율도 다르다. 외국인 학생은 한국 학생에 비해 피수식성분이 주어인 경우가 19%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목적어의 경우는 한국 학생의 경우보다 9% 정도 낮고, 부사어는 9% 정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학생의 관형사절 사용 양상을 분석하면서 관계관형사절의 피수식성분의 분포가 한국 학생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정 성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은 관형사절의 질적인 부분이다. 관형사절은 수식 성분이라는 기능상의 특징이 있지만, 아울러 '절(節)'로서의 형식상 특징도 있다. 주술관계를 포함해 여러 성분이 절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성분으로 절을 구성하는 능력은 한국어 문장을 구성해 내는 능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2) 가. 그때 내가 선택한 길이 유학을 가는 것이었다.
나. 성격이 밝은 사람들이 친구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산에 올라가는 길을 볼 수…
라. 침대에 누우면서 아까 했던 일을 생각하고…
마. 오래 동안 다녀서 목마르고 힘들기 때문에 골목에 있는 편의점에 가려고 하는데…
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는데....
사. 예전에 나는 매우 겁이 많은 사람이다.
아. 아주 작은 나라지만 매력이 넘치고 내가 아주 사랑하는 나라다.

(12)는 유학생이 만든 관계관형사절인데 (12.가~나)는 주어를, (12.다~라)는 목적어를, (12.마~바)는 부사어를, (12.사~아)는 서술어의 일부로 쓰인 체언을 수식하는 관계관형사절이다. 관형사절의 구성 성분을 보면, '주어-(목적어)-서술어', '(주어)-보어-서술어', '(부사어)-부사어-서술어', '부사어-(목적어)-서술어', '(주어)-부사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 '(주어)-부사어-보어-서술어', '(주어)-부사어-서술어',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구성을 보인다. 문장 구성 방식이 기본적인 문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 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그려 넣어 더 이상 자리가 없는 머릿속 도화지를 새것으로 바꿔주는 공간이 바로 산이다.
나. 옷이 땅에 끌리지 않게 뒤에서 잡아주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내가 자신의 일에 대단히 열정적인 주인공이…
다. 그저 재미있는 추억이 될 거란 생각으로 참가했던 국토대장정은 내게 최고의 순간을 전해준 고마운 경험이다

(13)에 쓰인 관형사절의 구성을 보면, (12)의 예와는 좀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학생의 경우는 기본적인 구성 성분을

갖춘 관형사절뿐만 아니라 (13)과 같이 여러 절 성분이 접속과 내포의 기제를 통해 얽혀 있는 관형사절을 사용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13)에서 볼 수 있는 관형사절을 사용하는 경향이 낮으며, 그만큼 관형사절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2. 제한적인 피수식명사 그리고 빈번한 오류

자료에서 확인한 동격관형사절의 사용 횟수는 다음과 같다.

〈표 5〉 동격관형사절의 사용 횟수

	외국인 유학생	한국 학생
동격관형사절 사용 횟수	27	62

동격관형사절의 사용 횟수는 관계관형사절에 비하면 그 수가 상당히 적다. 유학생 글에서 확인한 208개의 관형사절 중에서 동격관형사절의 사용 비율은 겨우 13% 정도에 그친다. 한국 학생의 글도 전체 관형사절 사용에 비하면 동격관형사절의 사용 비율은 17%를 조금 넘는다. 동격관형사절의 사용 비율에서 두 집단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동격관형사절에 참여하는 피수식명사의 종류를 보면, 두 집단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동격관형사절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진단해 보면, 유학생의 글에서 상당히 빈번한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9] 사용 비율의 문제가 아니

9) '나에게 가장 소중하는(√소중한) 사람은 가족을 빼면 그녀뿐이다.', '나는 어머니와 보이지 않은(√않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눈에 그냥 버려도 된(√버려도 되는) 식물이 그들 눈에는 아주 소중하다.'와 같은 문장에서 볼 수 있는 품사 혼동에 의한 오류, 시제 혼동에 의한 오류 등은 오류 관련 연구에서 수차례 보고된 바가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

라 사용능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격관형사절의 피수식명사로 주로 쓰인 것은 '이유, 사실, 생각, 말, 소식, 느낌, 결심, 기억, 일' 등이다. 이는 두 집단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 명사들 외에도 피수식명사로 사용된 예들을 보면,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은 '경우, 점, 믿음, 발표, 답, 제안, 얘기, 뿌리, 정보, 의미, 깨달음, 성취감, 확신, 디자인, 일념, 시련, 각오, 행운, 기분, 망설임' 등을 피수식명사로 사용하는 데 비해, 외국인 학생은 '마음, 의문, 질문, 문제, 핑계, 존재' 등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14) 가.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떤지를 직접 느끼게 되고 앞으로 이런 나의 행동을 바꿔야 할 생각이 들었다.
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했다.
다. 모든 수업을 한국어로 들어야 한다는 한 생각으로만…
라. 하나 밖에 없는 친구가 이사를 가고 학교를 바꿔라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충격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말하고 싶지…

(14)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글에서 동격관형사절이 사용된 예이다. 피수식명사로 '생각, 사실, 문제' 등이 쓰였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된 관형사절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14.가)는 관형사형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바꿔야겠다는' 또는 '바꿔야 한다는'와 같이 긴 관형사절 구성이 적절한데, 행위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 점에 주목하여 미래시제로 학습한 관형사형어미 '-(으)ㄹ'을 사용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다. (14.나)는 긴 관형사

다. 다만, 복합형식 사용상의 오류는 복합형식 사용 능력 진단의 차원에서 일부 논의할 것이다.

절을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하(다)' 형태를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 낸 예이다. (14.다)는 '-고 하(다)' 형태도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14.라)는 관형사형어미에 선행하는 문장의 종결 형태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동격관형사절의 피수식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 명사류를 이해하고, 해당 문장을 사용하고자 시도는 하고 있으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 비율이 전체 관형사절 사용량에서 보았을 때, 13%에 그치고 있고,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문장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3.3. 복합형식의 선호 그러나 형태,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

서희정(2009)에서는 관형사형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을 '관형사형어미-체언 인접구성'이라고 보고, 총 73개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10] 그 목록을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글쓰기에서 사용한 예들을 확인한 결과, 27개의 복합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표 6〉 외국인 유학생이 사용한 관형사형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

-(으)ㄹ 때, -었을 때, -(으)ㄴ 후에, -(으)ㄴ 뒤에,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ㄴ/는 것이다, -(으)ㄴ/는 데, -(으)ㄴ 지, -(으)ㄴ/는 것 같다, -(으)ㄹ 정도, -(으)ㄹ 수밖에 없다, -(으)면 ~ -ㄹ수록, -(으)ㄴ/는 채, -(으)ㄹ 뻔했다, -(으)ㄴ/는 게다가, -(으)ㄹ 만하다, -는 동시에, -(으)ㄹ 망정, -(으)ㄴ/는 듯, -(으)ㄹ 만큼, -(으)ㄴ/는지, -(으)ㄴ/는 줄 알다/모르다, -(으)ㄹ 바, -ㄴ/는지 알다/모르다, -(으)ㄴ/는 데다가, -(으)ㄴ 적이 있다/없다, -(으)ㄴ/는 편이다

10) 서희정, 「한국어교육을 위한 복합형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9, pp. 59-62.

〈표 6〉의 예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예는 '-(으)ㄴ/는 것,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ㄹ 때' 등이다. 한편, 한 문장 안에서 2개의 복합형식을 사용한 경우, 3회의 복합형식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형사형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을 비교적 다양하고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가.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나. 이런 친구가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다. 그래서 남은 대학교 2학기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 친구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 이렇게 애교를 부릴 때면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귀여울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15.가)가 '-(으)ㄹ 수 없다'와 '는 것이(다)'를 결합하여 사용한 것처럼, (15.나,다)도 복합형식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15.라)는 문장에서 복합형식이 개별적으로 2회 사용된 것이다. 두 집단의 글쓰기에서 사용된 복합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관형사형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의 사용 비율

	문장 수	1회	2회	3회 이상
외국인 유학생	221	164(74%)	43(19%)	14(7%)
한국 학생	315	231(73%)	62(20%)	22(7%)

〈표 7〉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관계관형사절이나 동격관형사절보다 관형사형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교재 및 교육현장의 영향을 받아 익숙하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 주지하다시피 〈표 6〉의 복합형식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문법항목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복합형식과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의 문법 사용 능력에 의문이 드는 것은 여러 오류 때문이다.

(16) 가. 극복할 수(√극복할 수 있는) 빛나는 성장에 도착했다.
나. 방학을 때(√방학했을 때) 집에 돌아가고 처음엔 좀…
다. 한 달 지내 후에(√지낸 후에) 월급을 타고 돈을…

(16)의 예는 외국인 유학생의 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 오류의 예들이다. (16.가)는 '-(으)ㄹ 수 있다'에서 '있다'를 사용하지 않아서 오류를 일으킨 경우이다. (16.나)는 '-었을 때'를 사용할 자리에 '-었-'을 생략하고 사용하였으며, 더불어 '-었을 때'에 선행하는 성분도 동사어간 형태가 아닌 명사어근 형태로 잘못 사용한 예이다. (16.다)는 '-(으)ㄴ 후(에)'를 사용하지 못하고, 관형사형어미 자체를 생략시킴으로써 오류를 일으킨 예이다.

(17) 가. 형은 효도하는 사람인 뿐만 아니라(√사람일 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사람이다.
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고양이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고양이일 줄 알았다(√고양이인 줄 알았다).
다. 자기가 먹은(√먹을) 만큼 음식을 시키면 좋겠다.

(17)의 예는 복합형식의 일부인 관형사형어미를 다른 관형사형어미로 대치시켜 발생한 오류이다. (17.가)는 복합형식 '-(으)ㄹ 뿐만 아니라'의 관형사형어미 '-(으)ㄹ'을 '-(으)ㄴ'으로 대치하여 사용하였다. (17.나)는 '-(으)ㄴ/는/-(으)ㄹ 줄 알다'를 시제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인데, '-(으)ㄴ'을 '-(으)ㄹ'로 대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일으킨 예이다. (17.다)의 '-(으)ㄴ/는/(으)ㄹ 만큼'도 (17.나)의 경우와 같다. '-(으)ㄹ'을 사용해야

함에도 '-(으)ㄴ'을 쓴 것이다. 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형식의 경우, 그것이 고정된 것도 있고, 시제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것도 있다. 어미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는 시제 등의 문법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는 어미가 고정된 형태를 학습하고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가)처럼 어미가 고정된 형태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 학습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교수자 역시 고정된 관형사형어미임을 강조하여 교수할 필요가 있다.

(18) 가. 시내에 가면 택시를 탄 것이 밖에 없다(탈 수밖에 없다).
나. 이 말을 들어 후에(√들은 후에) 화가 났다.
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기 위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라. 중국의 16개 성을 가 봐 적인 있다(√가 본 적이 있다).

(18)에서 볼 수 있는 오류는 관형사형어미를 포함한 복합형식에서 관형사형어미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연결어미 등 다른 요소를 선택하였거나, 복합형식의 구성요소인 의존명사를 다른 의존명사로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18.가)는 복합형식 '-(으)ㄹ 수밖에 없다'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의존명사를 잘못 사용하였으며, 관형사형어미도, 그것이 고정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한 예이다. (18.나)는 관형사형어미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연결어미를 사용한 경우이고, (18.다)는 연결어미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관형사형어미를 사용하여 오류를 일으킨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고정된 관형사형어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기 위해'를 '-기 위한'으로 잘못 사용한 예이다.

(18.라)는 '-(으)ㄴ 적이 있다'를 쓸 자리에 관형사형어미를 쓰지 않고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 (18.라)에서 특이한 오류는 '의존명사+주격조사'의 자리에 '의존명사+서술격조

사+관형사형어미'의 형태를 사용한 '적인 있다'이다. 관형사형어미를 쓸 자리에 연결어미를 사용하고, 관형사형어미를 쓰지 말아야 할 자리에 관형사형어미를 사용한 이런 경우는, 학습자가 복합형식 형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형사형어미의 용법을 분명히 학습하지 못했음을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글쓰기 과정에서 관형사형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을 활발하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형태의 정확성에 민감하지 못하다. 이는 문법 사용 능력의 문제로 진단할 수도 있지만 학습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특정한 관형사형어미로 고정되어 있는 복합형식의 경우, 학습자가 사용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오류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제에 따라 관형사형어미를 선택해야 할 복합형식의 경우는 단순히 그러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 학습자는 초급에서부터 관형사형어미를 시제 범주와 연계하여 학습한다. 그럼에도 특정 시제에 부합하는 어미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시제 범주의 사용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관형사형어미 및 관련 복합형식의 사용 능력도 충분치 못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복합형식 사용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은 그들이 관형사형어미의 후행성분 수식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복합형식의 구성성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관형사형어미를 연결어미 등으로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복합형식 자체가 후행 성분을 수식하는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형사형어미를 사용하여 그 기능을 표현해 내지 못하기도 한다. 복합형식의 의미에 초점을 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형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기능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 필요하다.

4. 맺음말

학부에서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글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정확하고 유창하게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담아내는 글을 쓰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국어 문장을 접속시키거나 내포시켜서 하나로 엮는 일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법항목에 대한 이해와 문장에 참여하는 구성성분 간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 '관형사형어미', '관형사절', '관형사형어미를 포함한 복합형식'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이 학부 글쓰기 강좌에서 제출한 과제를 분석한 결과, 매우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가진 간단하고 짧은 관형사절 사용이 주를 이루었고, 관형사절의 수식 대상은 주로 주어에 한정되어 있으며, 동격관형사절의 피수식명사도 그 수가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형사형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을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정확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형사절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형태의 오류, 시제 오류 등의 문제가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부주의로 인해 비문법적인 문장이 양산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관형사절의 본질적 기능인 수식의 기능, 그리고 문장의 확대 기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형사형어미를 주로 시제와 관련시켜 제한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고은정,「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3.
김서형,「한국어 내포문의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 pp. 129-141.
김서형·홍종선,「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확대문 교육 방안」, 한국문법교육학회,『문법 교육』13권, 2010, pp. 115-136.
김정숙,「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 대학 진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한국어교육』11-2, 2000, pp. 1-19.
서희정,「한국어교육을 위한 복합형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9.
성지연,「한국어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 오류 연구」,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35권, 2010, pp. 51-74.
이재성,「학술적 에세이에 나타난 대학생의 문장 구성 양상 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교양교육연구』6-3, 2012, pp. 569-589.
이준호,「한국어 명사구 보문절의 교육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한국어교육』24-3, 2013, pp. 211-237.
이진경,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5.
임시현,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형사형 어미 교수·학습 원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2011.
조수현,「한국어 학습자들의 관계절 사용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비교문화연구』19권, 2010, pp. 359-388.
한병수,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 습득 양상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09.
한 청,「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내포문 오류 양상 연구 - 한·중 내포문 대조 연구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석사 논문, 2009.
혼다 도모쿠니·김인규,「한국어교육과 일본어교육에서의 학문 목적 쓰기 교재 분석」,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61호, 2011, pp. 31-72.
홍윤기,「문법 교육 항목으로서의 새로운 관형사절 도입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이중언어학』42권, 2010, pp. 331-361.

2. 단행본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4.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박이정, 2014.

(**투고일**: 2015. 6. 30 **심사완료일**: 2015. 7. 27 **게재확정일**: 2015. 8. 5)

홍윤기(제1저자)
소속: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번호: 02-961-2379
전자우편: yunkihong@khu.ac.kr

유호(제2저자)
소속: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번호: 02-961-0223
전자우편: liuhao1126@naver.com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Ability to Use Adnominal Clauses

- Focusing on the Essays Written by Chinese Students -

Hong, Yun-Ki · Liu, Hao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adnominal clauses in essays written by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and presenting the appropriate suggestions for teaching the adnominal claus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adnominal clauses produced by Chinese students. First,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tend to use very short and simple adnominal clauses. Second, most adnominal clauses modify a subject of sentence. Third, the appositive adnominal clauses modify a couple of limited nouns. Fourth, composite forms including adnominal endings are frequently used, but their accuracies are in doubt. Fifth, the errors are found in forms and tenses of the adnominal clauses.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have a propensity to use the adnominal clauses incorrectly like this. Therefore, the essential functions of adnominal clauses such as modification and expansion of sentence should be emphasized in education of the adnominal clauses.

Key words: Adnominal clause, Appositive adnominal clause, Academic writing, Relative adnominal clause, Embedded sentence, Error, Adnominal ending, Composite forms, Ability to use grammar